

# 남북한 음성언어의 실험음성학적 연구<sup>1)</sup>

이현복(서울대)

## <차례>

- |                       |                       |
|-----------------------|-----------------------|
| 1. 머리말                | 5. 남북한 언어의 자음 차이      |
| 2. 남북한의 음성 언어 개관      | 6. 남북한 모음 길이의 차이      |
| 3. 남북한의 모음 체계 및 분류 방법 | 7. 남북한 언어의 리듬과 억양의 차이 |
| 4. 남북한 언어의 모음 차이      | 8. 맺 음 말              |

## <Abstract>

### **An Experimental Phonetic Study of South and North Korean Speech**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the linguistic differences of two Koreas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phonetic aspect of Seoul and Pyongyang speech. The sources of the North Korean speech material used in the study are 1) the Pyongyang radio and TV broadcasts, 2) interview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3) speech material of north Korean scholars collected by the writer in London, Warsaw, France and China between 1989 and 1994.

The most noticeable phonetic differences of Seoul and Pyongyang speech are abstracted as follows: 1) The vowels /이/, /에/ and /애/ are higher and fronter in Pyongyang speech than in Seoul speech. 2) The vowels /우/ and /으/ of Pyongyang speech are somewhat fronter than the corresponding vowels of Seoul speech. 3) The Pyongyang vowels /오/ and /어 are produced with rounded lips compared to the corresponding Seoul vowels. 4) The Pyongyang vowel /오/ is much lower in tongue position and at the same time somewhat fronter than the corresponding Seoul vowel. 5) The consonants /스, 쐤, 쑤/ are pronounced in Pyongyang as alveolar affricates or something close to them whereas they are pronounced in Seoul as post-alveolar affricates. 6) Unlike in Seoul speech there is a very strong tendency in Pyongyang speech to reduce aspiration feature in consonant sequences such as /ㅃ+ㅎ/, /ㄷ+ㅎ/, /ㅈ+ㅎ/. 7) /ㄴ/ and /ㄹ/(flap) freely occur word-initially in Pyongyang speech whereas they are restricted in Seoul speech. 8) Unlike in Seoul speech the phonemic contrast of long and short vowels are generally not functional in Pyongyang speech. Thus the vowels pronounced long in Seoul speech are usually pronounced short in Pyongyang speech.

\* 본 연구는 산학협동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 졌음.

## 1. 머리말

이 글은 남북한의 음성 언어를 음성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차이를 기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해방 이후 반세기에 이르는 동안, 남북한간에는 언어의 이질화가 심화되었다.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는, 어휘, 어법, 맞춤법, 관용적 표현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음성 언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 다시 말하면, 남북한의 언어는 발음 면에도 커다란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미 1960년대에 북한에서는 남북의 언어 차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다. 이는 김일성의 북한 언어학자와의 대화 속에 나타나 있다. 즉, 남조선의 말은 일어, 영어 등의 외국말이 뒤섞여 있는 잡탕말이고 그 말씨는 여자가 남자에게 아양을 떠는 듯한 코맹맹이 소리라고 호되게 비판한 바가 있다. 이를 풀어 말하면, 남한 말은 아직도 외래어에 많이 오염되어 있으며, 남한의 말씨는 유약하고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말씨에 관한 내용은 순전히 음성언어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북한은 혁명의 참모부가 있는 평양말을 중심으로 한 “문화어”를 북한의 표준말로 내세운 것이다. 그리고 평양말은 “씩씩하고 기백이 넘치는 발음”임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이 남북한 언어간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차별성의 강조는 바로 남북한의 현실적인 언어 차이를 드러 낼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 남북한의 음성언어가 어느 면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가를 음성학적으로 기술한다. 특히 어느 한 면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장차 이 분야의 정밀한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둔다. 분석과 기술의 방법은 조음음성학적인 방법에 주로 의존하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음향 기기를 이용한 실험음성학적 방법을 도입한다. 음향학적인 실험에는 Kay 사의 CSL 4300을 이용하였다.

북한의 음성 음운론적인 서적과 논문에는 정밀한 음성의 분석이나 기술을 찾아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한 북한의 음성 자료는 모두 필자가 수집한 북한의 음성 언어 표본을 직접 조음음성학적으로 분석하고 기술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실제로 이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평양 방송의 음성자료.
- 2) 귀순자의 음성자료.
- 3) 런던, 폴란드 바르샤바, 프랑스 그리고 중국 연변에서 만난 북한의 학자와 인사들의 음성 자료.

## 2. 남북한의 음성 언어 개관

남북한의 음성언어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며, 음성학자나 언어학자가 아닌 일반인도 막연하게나마 그 차이를 인식한다. 가령, 1970년대 초에 있었던 남북 적십자회담 장면을 지켜본 서울 사람들은 북한측 인사의 발언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말씨를 듣고 심한 이질감과 함께 섬뜩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남한의 국민들은 북한말을 듣고 섬뜩함과 아울러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8.15 해방 이후 처음으로 대하는 북한 대표단의 공식적인 연설과 대화였으므로 그러한 느낌은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다. 평양의 라디오 방송을 직접 듣거나 서울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소개되는 평양의 텔레비전 보도를 접하면 지금도 남한의 국민들은 여전히 이러한 인상을 갖게 된다.

### 2.1. 남북한 음성 언어 차이의 실체

그러면 북한 말씨에서 느끼는 그러한 이질적이고 섬뜩한 인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낱말의 차이, 즉 어휘가 다른 점을 들 수가 있다. “상호간에”를 “호상간에”라고 하고, “채소”를 “남새”라고 하는 따위가 그러한 예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어휘의 차이는 이 논문에서 다룰 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연구 대상이 된다.

둘째, 발음의 차이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발음은 바로 음성언어의 구체적인 발현이다. 그리고 발음이야말로 말씨의 인상과 특성을 직접적으로 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모국어와 외국어의 차이를 발음의 여러 가지 특성에서 제일 먼저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발음이라고 하는 음성언어적 특성은 다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세분된다: 1) 모음의 음가, 2) 자음의 음가, 3) 모음의 장단, 4) 리듬과 억양

이러한 여러 음성적 요인이 독립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전체적인 말씨의 인상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가령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는 오늘날 위에서 말한 음성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영.미 영어는 love와 cut같은 모음에서 차이가 나고, butter에서와 같이 약음절에서 나는 /t/ 의 음가가 사뭇 다르다. 또한 장단과 리듬 및 억양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말에서도 서울말과 경상도 말은 모음과 자음, 장단과 리듬 및 억양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말도 이러한 음성학적인 요인에서 남한말과 큰 차이를 들어낸다. 이 과제에서는 모음과 자음의 음가, 모음의 길이 및 말의 리듬과 억양을 대상으로 하여 남북한 음성언어의 두드러진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비교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 2.2. 남북한의 음성학 및 음운론 연구의 비중과 방법의 차이

북한의 우리말 연구에서 말소리를 다루는 “어음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한 비하여 상당히 큰 편이다. 이는 “조선문화어문법”이나 “조선문화어문법규범”같은 북한의 우리말 연구 서적을 살펴보면 쉽게 들어 난다. 전체 책 분량의 삼분의 일에서 사분의 일을 어음론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비중은 대단히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나온 유사한 종류의 연구서에서 음성학이나 음운론이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낮기 때문이다.

## 2.3. 음성학과 음운론의 통합 기술

그러나 북한에서의 말소리 연구는 음성학과 음운론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여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음성학과 음운론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기술하는 것이 한국의 일반적인 경향인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음성학과 음운론을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여 연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유리한가 불리한가 하는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 두 분야를 하나로 통합, 기술하는 데서 비롯되는 방법에는 분명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어음론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밀한 음성학적인 기술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어음론 연구나 논문에서는 모음과 자음의 음가 기술이라든지 리듬과 억양에 관한 정밀한 분석과 기술이 엿보이지 않는다.

## 3. 남북한의 모음 체계 및 분류 방법

### 3.1 북한의 모음 체계와 분류 방법

북한에서는 우리말의 홀모음을 10개로 잡는다. 한국에서는 학자에 따라서 모음의 수를 8개나 9개 또는 10개로 잡는 것과 대조가 된다. 즉 전설 원순 모음 /위/와 /외/를 각각 독립된 모음으로 처리하여 10모음이 된 것이다. 이것은 물론 남북의 방언적인 언어 차이, 그리고 한국에서는 표준말 지역 안에서 세대에 따른 차이도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아무튼 북한에서는 10모음이 정설로 되어 있다.

북한의 10 모음은 다음과 같은 2 가지 다른 체계로 분류함을 볼 수 있다. 먼저 그

하나는 조음위치의 앞뒤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는 방법이다.

끝모음 : ㅁ  
 앞모음 : ㅑ, ㅓ, ㅕ, ㅗ  
 가운데모음 : ㅡ  
 뒤모음 : ㅓ, ㅑ, ㅕ, ㅗ

여기서 모음 / ㅁ/를 앞모음에서 분리하여 끝모음으로 세운 것은 좀 특이한 분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모음의 조음 위치상의 높낮이를 정함에 있어서도 북한은 일반음성학적인 기준과는 차이가 나는 분류를 보인다. 즉, 발음할 때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낮은 모음과 높은 모음의 두 갈래로만 나눈다. 그리고 혀의 높낮이는 절대적인 높낮이가 아니라, 입술을 오므리는 모음과 오므리지 않는 모음을 따로따로 본 상대적인 높낮이에 의하여 규정한다. 그러므로 등근모음 가운데서 높은모음과 낮은모음, 길쭉모음 가운데서 높은모음과 낮은모음이 따로 갈라져 나오는 것으로 높낮이 관계를 설명한다. 그리하여 모음은 먼저 입술의 상태에 따라서 길쭉(평순)모음과 등근(원순)모음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각각 높낮이 모음을 다음과 같이 대립시킨다:

길쭉모음(평순모음)  
 높은모음 : ㅓ, ㅑ, ㅕ, ㅡ  
 낮은모음 : ㅓ, ㅑ  
 등근모음(원순모음)  
 높은모음 : ㅕ, ㅗ  
 낮은모음 : ㅓ, ㅑ

이러한 분류는 순수한 음성학적인 분류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음운론적인 양분법에 근거한 분류라고 보는 것이 옳다.

또한 “조선문화어문법규범”(19쪽, 그림 2)이 모음삼각도상에 10개의 홀모음을 발음하는 자리에 따라서 배열해 놓기는 하였으나, 높고 낮음의 2단 분류만 가지고는 모음의 정확한 음가를 나타내기가 어렵다고 본다. “조선문화어문법” 역시 전통적인 모음삼각도를 도입하여 10개의 모음을 조음 위치의 전후에 따라서 앞모음, 가운데모음, 뒤모음으로, 그리고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높은모음, 중간높은모음, 중간낮은모음, 낮은모음으로 나누어 배열하고 있긴 하나 이 역시 정확한 모음의 음가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자료에는 어디에도 정확한 소리값의 기술이 나와 있지 않다.



## 4. 남북한 언어의 모음 차이

남북한의 모음은 음성학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남북한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모음의 차이를 다음에 기술한다. 여기서 북한말은 평양말을 주축으로 하는 문화어를 기준으로 하고 남한말은 표준말의 모태인 서울말을 기준으로 삼아 비교하기로 한다. 홀소리의 소리값은 국제음성학협회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에서 제정한 “기본모음”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하는 것이 정밀하고 편리하다. 그리고 음가의 설명은 복잡한 음성기호를 이용한 음가 표기를 되도록 피하고 음성학적인 기술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이 방법은 자음의 기술에도 적용된다.

### 4.1 홀소리 /이/

/이/는 앞혀를 센입천장으로 올려서 내는 전설 평순 폐모음이다. 표준말에서 길고 세게 나는 /'이:/ 는 혀에 긴장이 있으며, 짧고 세게 나는 /'이 /와 약하게 나는 /이/ 는 혀에 긴장이 없는 홀소리이다.

- 보기: 1) 긴 /이:/ -> 이발 /'이:발/, 시장 /'시:장/  
 2) 짧은 /이/ -> 김치 /'김치 /, 이 날 /'이'날/

북한말의 홀소리 /이/는 그 음가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로 날말의 첫음절에서 나는 /이/ 소리는 제1차 기본모음 1번 [i]에 육박하는, 혀위치가 높은 모음으로 나며, 따라서 대단히 날카로운 소리값을 지닌다. 그러나 그 밖의 위치에서, 특히 약한 음절에서 나는 /이/는 표준말의 짧은 /이/에 가깝거나 이보다 더 열린 모음으로 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짧게 날 때나 길게 날 때도 소리값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북한말의 이러한 음가 차이는 같은 음절에서 선행하는 자음의 음가에도 반영된다. 가령, “미워한다”에서 첫음절의 /이/모음이 상당히 높은 모음으로 나고 이와 더불어 /이/ 앞의 /ㅁ /도 구개음화가 수반되나, “합니다”에서의 /니 /는 /이/ 모음의 음가가 낮을 뿐 아니라 앞서는 /ㄴ /역시 구개음화 되지 않는다. 표준말의 경우 “합니다”의 /ㄴ /은 구개음화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4.2 홀소리 /에/

/에/는 앞혀를 센입천장으로 향하여 올려서 내는 전설 평순 반폐모음이다. 환경에

따라 길고 세게 나는 /'에:/는 기본모음 [e]보다 약간 낮고 후퇴한 소리이며, 짧고 세게 나는 /'에/는 /'에:/보다 낮고, 약한 /'에/는 기본모음 3번 [e]보다 높고 후퇴한 홀소리이다.

- 보기: 1) 긴 /'에:/ -> 배다 /'베:다/, 세다 /'세:다/  
 2) 짧은 /'에/ -> 메밀 /'메밀/, 삼베 /'삼베/

요즘 일부 젊은 층에서는 /'에/를 너무 열린 소리로 발음하여 /'에/에 가깝게 내는 일이 있다. 이들은 “계산”을 /'개산/과 같이 발음하며 “셋집”을 /'셋:집/과 같이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표준말의 /'에/에 비해서 북한말의 /'에/는 기본모음 2번으로 나거나 이에 아주 근사한 날카롭고 명확한 소리이다. 그러므로 표준말의 /'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혀 위치에서 나는 날카로움이 덜한 소리이다.

#### 4.3 홀소리 /'에/(=e)

/'에/는 앞혀를 센입천장으로 향하여 올려서 내는 전설 평순 반개 모음이다. 표준말의 /'에/는 음성 환경에 따라 소리값이 다르다. 길고 세게 나는 /'에:/는 기본홀소리 [e]보다 다소 낮고 후퇴한 소리이고, 짧고 세게 나는 /'에/는 기본홀소리 [e]보다 높아서, 약간 후퇴한 일차 기본 모음 3번에 가깝고, 약한 /'e/는 기본홀소리 [e]보다 다소 높으며 상당히 후퇴한 홀소리이다.

- 보기: 1) 긴 /'에:/ -> 해방/ '해:방/, 새장/ '새:장/  
 2) 짧은 /'에/ -> 매일/ '매일/, 고개/ '고개/

젊은 세대는 홀소리 /'에/를 닫힌 소리 /'에/로 잘못 발음하는 일이 많다. 이는 /'에/를 발음할 때에 입과 혀를 충분히 벌리고 발음하지 않아서 비롯되는 잘못이다. 이들은 해방을 /'해:방/, 새장을 /'새:장/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이러한 세대의 발음에서는 홀소리 음소 /'에/와 /'에/가 음운론적 대립을 상실하게 된다.

북한말의 /'에/ 모음 역시 표준말과 유사한 소리로 나되, 앞으로 전진한 위치에서 발음되기 때문에 더욱 명확한 소리값을 보인다. 그러나 북한말에서도 세대에 따른 소리값의 차이가 있다. 최근에 귀순한 20대의 말씨에서는 /'에/의 음가가 상당히 상승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미워했어”라는 말에서 /'했어/는 /'했어/로 나며. 이 때의 /'에/ 음가는 기본모음 2번에 가까운 소리로 난다.



#### 4.4 홀소리 /아/

표준말의 /아/는 가운뎃을 열린 위치에 두고 내는 중설 평순 개모음이다. 소리환경에 따라 길고 세게 나는 / '아:/는 기본 모음 [a]에서 전진하며, 짧고 세게 나는 / '아/는 기본 모음 [a]에서 다소 후퇴한 소리이고, 약한 /아/는 기본 홀소리 4번과 5번의 중간에서 약간 중앙화된 소리로서 [a]와 비슷한 홀소리이다.

- 보기: 1) 긴 /아:/ -> 안개/ '안:개/, 많다/만:타/  
2) 짧은 /아/ -> 밥/ '밥/, 아가/아가/

북한말의 홀소리 /아/는 기본모음 4번 [a]에서 다소 후퇴하고 상승한 위치에서 난다. 또한 길고 짧게 날 때의 소리값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북한말의 /아/는 표준말의 짧은 /아/에 근접한다고 기술할 수 있다.

#### 4.5 홀소리 /어/의 원순화

표준말에서 홀소리 /어/ 가 짧게 날 때는 후설 반개 평순모음으로 나고 긴 소리로 날 때는 소리값이 이보다 중앙화하여 반폐 중설의 위치에 있으나, 입술은 여전히 평순으로 난다. 즉 표준말에서 짧은 / ㅑ/는 제2차 기본모음 6번 [a]에 가까운 소리로 나며 긴 /어:/는 제 2차 기본모음 7번에서 중앙화한 소리값인 [a]로 난다.

- 보기: 1) 긴 /어:/ -> 전화/ '전:화/, 선물/ '선:물/  
2) 짧은 /어:/ -> 먹어/ '머거/, 방법/ '방법/

그러나 북한말의 '어'는 제 1차 기본모음 6번에서 약간 상승하고 앞으로 전진한 소리로 난다. 뿐만 아니라, 길게 날 때에도 소리값이 상승, 중앙화하지 않으며 항상 원순음으로 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씩다', '걱정', '걸다' 같은 말에서 북한말의 '어'는 [쑤다], [곡중], [곧다]에 가깝게 나므로 표준말의 '어'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북한말에서 /어/의 원순화는 원래 평안도 방언의 음성적 특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나, 현재 북한의 이른바 문화어는 주로 평안도 말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이 같은 음성적 특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4.6 홀소리 /으/

표준말의 홀소리 /으/는 뒤혀를 어린입천장으로 향하여 올려서 내는 “후설 평순 폐모음”이다. 길고 세게 나는 /'으:/는 2차 기본모음 8번보다 약간 낮은 모음, 또는 이보다 다소 전진한 소리이며, 짧고 세게 나는 /'으/는 /'으:/보다 더 낮고 전진한 소리이다. 또한 약한 /으/는 /'으/보다 더 낮고 전진한 소리이다.

- 보기: 1) 긴 /으:/ -> 음식 /'음:식 /, 그림/'그:림/  
 2) 짧은 /으/ -> 흙 /'흑/, 연극/'연:극/

이에 비해 북한말의 /으/는 혀 위치가 중설 쪽으로 전진하며 특히 원순을 동반하는 원순모음으로 실현되어, 표준말 사용자들에게는 /우/에 가깝게 들린다. 그러나 /우/보다는 혀가 중설의 위치로 전진하여 중설 평순 고모음, 즉 기본모음 제2차 18번 모음 [ㅜ]에 유사한 음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극적’, ‘승산’, ‘음악’ 같은 낱말은 북한말에서 /국적/, /승산/, /음악/에 가깝게 발음된다. 모음의 원순화 현상은 본래 평안도 방언의 음성적 특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나, 현재 북한의 문화어는 주로 평안도 방언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이 같은 음성적 특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모음 /으/가 보이는 음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몇 가지 실험음성학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여기서는 일관성과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필자의 표준말 발음과 필자가 조음적으로 모방한 북한말의 발음을 녹음하여 음향음성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아래에 제시된 결과는 테잎에 녹음된 음성자료를 CSL 430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각각의 그림에서 상단에는 파형이 나오며 그 하단에 스펙트로그램이 나와 있다. 파형에는 세로로 실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것은 모음의 포먼트 값을 채취한 지점을 가리킨다. 스펙트로그램에도 원래는 눈금자가 있었으나 인쇄한 후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실선이 그어진 지점에서 FFT 파워스펙트럼을 보고 그 수치를 확인한 것이다. 각각의 스펙트로그램에서는 display range를 0Hz에서 3000Hz까지로 하였다. 대개 3000Hz 이하에서 모음을 변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F1, F2, F3이 모두 나타나므로 그렇게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SPG frame length 즉 bandwidth는 200(117Hz)으로 하였다. 각각의 그림에서 스펙트로그램의 오른쪽 위에는 < >안에 모음의 formant frequency 수치가 기록되어 있다. 그림 1과 2는 남북한의 [으]의 F1 값을 각각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3과 4는 [으]의 F2 값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 음성언어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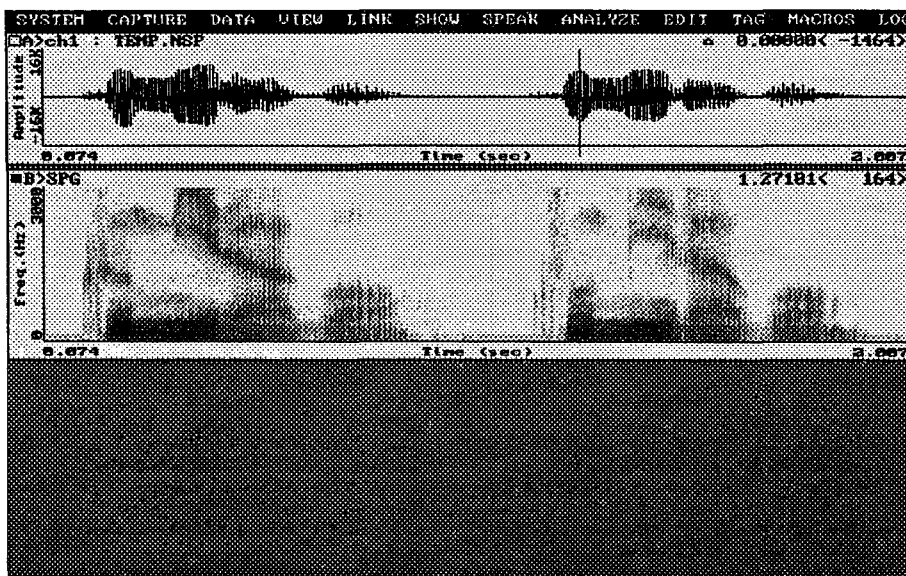


그림 1. NK. “금이라고 했어.” [ㄱ ㅡ ㅁ ㅣ ㄹ ㅏ ㅓ ㅎ ㅍ ㅈ ㅊ]



그림 2. SK. “금이라고 했어.” [ㄱ ㅡ ㅁ ㅣ ㄹ ㅏ ㅓ ㅎ ㅍ ㅈ 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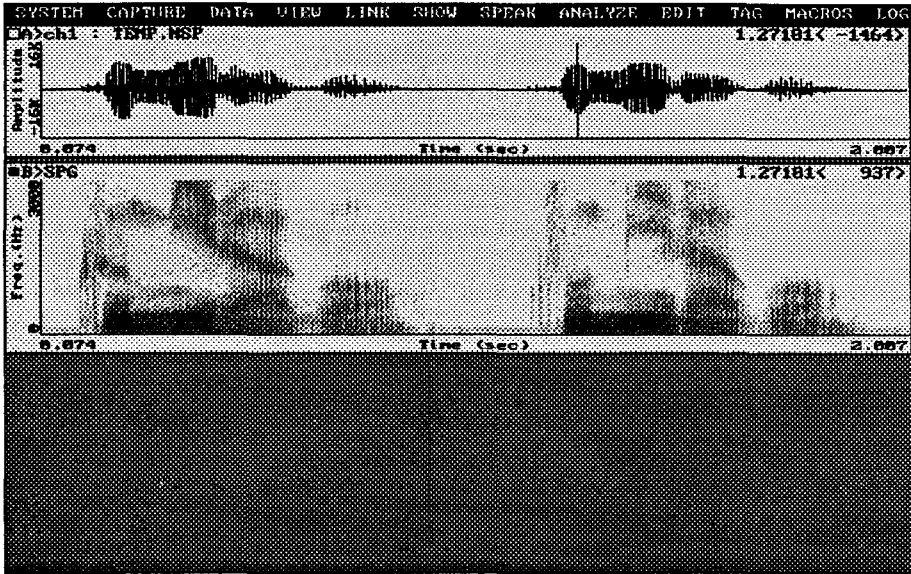


그림 3. NK. “금이라고 했어.” [ㄱ ㅡ ㅁ ㅣ ㄹ ㅏ ㅈ ㅓ ㅎ ㅍ ㅅ ㅏ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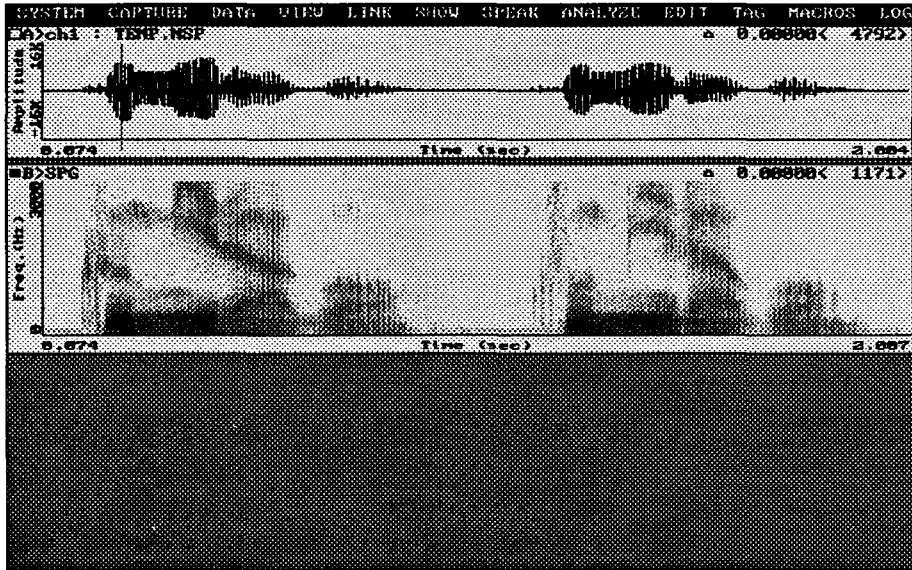


그림 4. SK. “금이라고 했어.” [ㄱ ㅡ ㅁ ㅣ ㄹ ㅏ ㅈ ㅓ ㅎ ㅍ ㅅ ㅏ ]

이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남북한의 [으]와 [오]는 다음과 같은 Formant 값의 차이를 보여 준다.

[으] (단위: Hz)

Formant값 \	남북한	북한	남한
F1		164	234
F2		937	1171

위의 표에서 제시한 F1과 F2의 값 차이는 바로 남북한의 모음 /오/의 소리값 차이를 실험음성학적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4.7 홀소리 /오/

홀소리 /오/는 뒤혀 여린 입천장으로 향하여 반열린과 반닫힌 위치의 사이로 올라서 내며 원순이 있는 “후설 원순 반폐 모음”이다. 환경에 따라 소리값이 달라지는데, 길고 세게 나는 /'오:/는 기본모음 7번 [o]보다 다소 낮고 보통 정도의 원순을 수반하며, 짧고 세게 나는 /'ㄴ/는 기본모음 [o]와 [ɔ]사이의 중간 홀소리로, /'오:/보다 더 낮고 원순도 더 약하다. 그리고 약하게 발음되는 /오/는 개인차가 많으나 대체로 기본모음 [ɔ]보다 약간 높고 전진해 있는 소리이며 원순이 아주 약한 소리이다.

보기: 1) 긴 /오:/ -> 오십/ '오:십/, 조심/ '조:심/

2) 짧은 /오/ -> 봄/ '봄/, 사고/ '사:고/

북한말의 /오/는 표준말에 비해서 혀의 위치가 낮아져서 제1차 기본모음 6번에서 앞으로 전진한 모음 [ɔ+]로 난다. 이 음가는 프랑스 말의 homme[ɔ+m]에서 나는 모음의 음가와 같다. 남북한의 /오/ 모음은 음가의 차이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일반인도 쉽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며, 따라서 남북한 언어의 대표적인 차이로 볼 수 있다.

모음 /으/와 마찬가지로 모음 /오/의 남북한간의 음가 차이를 음향음성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자가 발음한 남한과 북한의 발음 자료를 CSL로 분석하여 보았다. 여기서 그림 5와 6은 스펙트로그램 상에서 모음 [오]의 F1 값을 각각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7과 8은 [오]의 F2 값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말소리 29-3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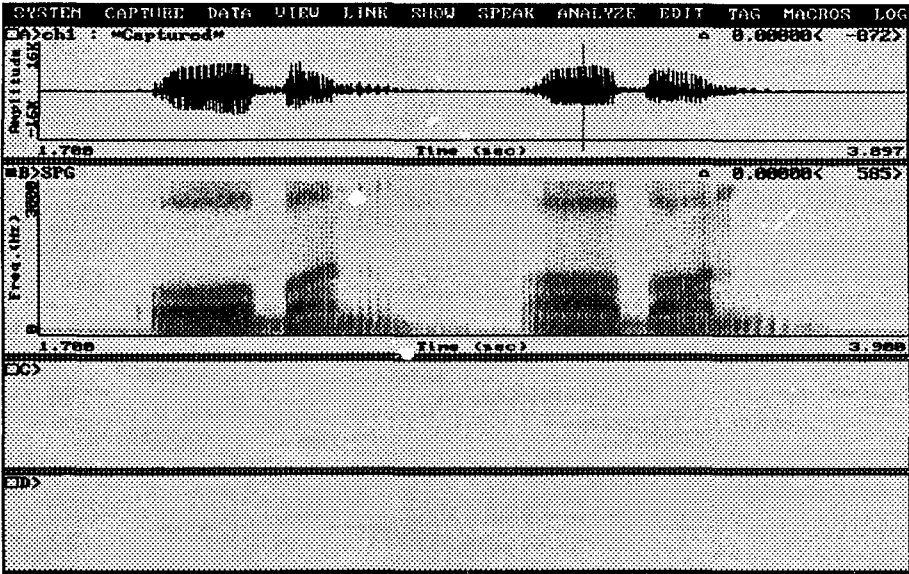


그림 5. NK. “오번” [ 오 버 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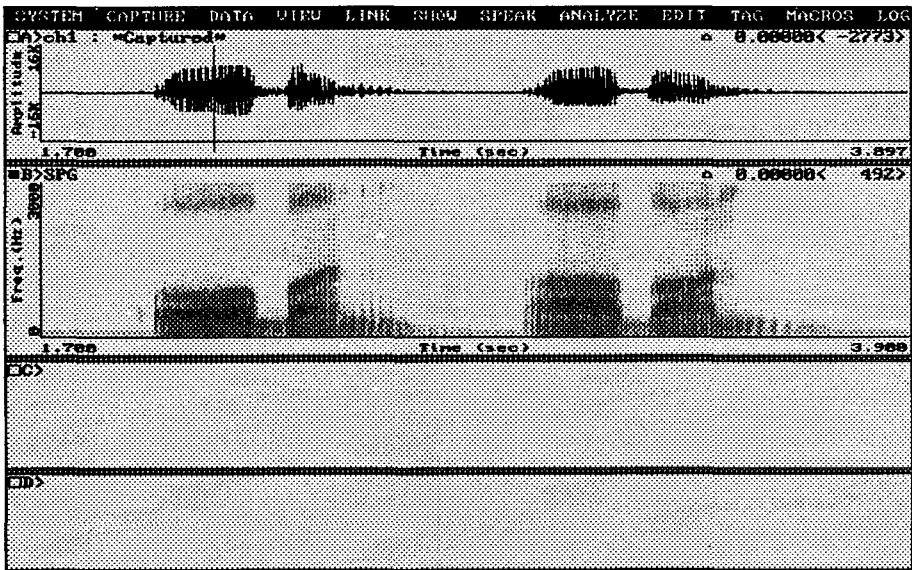


그림 6. SK. “오번” [ 오 버 너 ]

남북한 음성언어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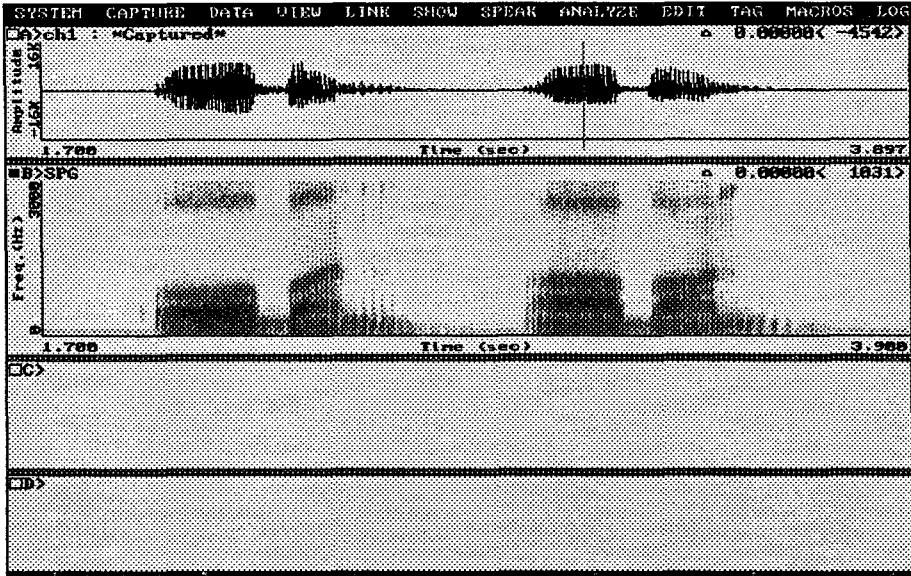


그림 7. NK. “오번” [ 오 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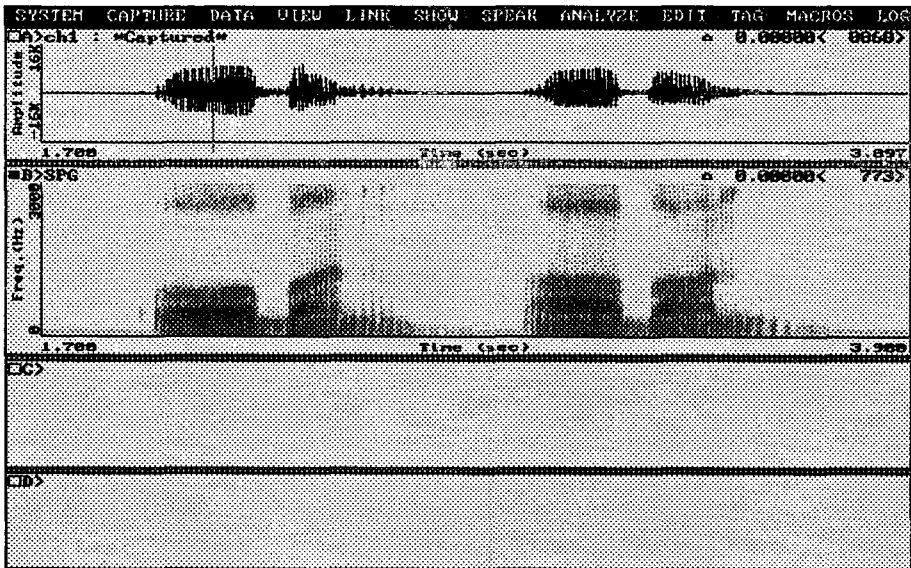


그림 8. SK. “오번” [ 오 바 ]

[오] (단위: Hz)

남북한	북한	남한
Formant 값		
F1	585	492
F2	1031	773

위의 표에서 제시한 F1과 F2의 값 차이는 바로 남북한의 모음 /오/의 소리값 차이를 실험음성학적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4.8 홀소리 /어/와 /오/

표준말에서 홀소리 /어/와 /오/는 혀의 높낮이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는 특히 원순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오/는 강한 원순성을 가지고 /어/는 장단에 관계없이 평순으로 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북한의 /어/는 원순성을 지니며 /오/ 역시 원순으로 날 뿐 아니라 혀위치도 낮게 나므로, 실제로 북한말에서 /어/와 /오/는 구별이 안될 정도로 같은 음가로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점에서 남북간에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 4.9 홀소리 /우/

홀소리 /우/는 뒤혀를 여린 입천장으로 향하여 올려서 내는 “후설 원순 폐 모음”이다. 길고 세게 나는 /'우:/는 기본 홀소리 [u]보다 약간 낮은 홀소리이거나 그보다 다소 전진한 소리로서 입술동그림과 긴장이 있고, 짧고 세게 나는 /'우/는 /'우:/보다 약간 낮고 전진한 소리이며 원순성이 아주 약해서 거의 없다고 보아야할 경우도 있다.

- 보기: 1) 긴 /우:/ -> 우측/ '우:측/, 부자/ '부:자/  
 2) 짧은 /우/ -> 운전/ '운전/, 겨우/ '겨:우/

북한말의 /우/는 표준말의 /우/보다 혀위치가 앞으로 전진한 채 발음되는 소리이다. 다시 말하면, 후설성이 없고 중설성의 폐모음으로 기술하는 것이 옳다.



#### 4.10 /외/의 소리값

표준말에서 /외/는 “전설 원순 폐모음”으로 나기도 하고 겹홀소리로 나기도 하는 특이한 소리이다. 앞혀에서 반닫힌 입벌림으로 조음되는데, 훌훌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둥근 입술의 훌소리이고, 겹홀소리로 날 때에는 [we]와 같이 전사할 수 있다. 즉, 전이음인 반홀소리 [w]와 훌소리 [e]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외/를 훌소리 [e]로 내는 이들은 대체로 일부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 국한되어 있으며, 보통은 모두 겹홀소리(이중모음)로 발음한다. 또한 전라도 방언에서는 /외/[ø]가 일반적으로 훌소리 [e]로 난다.

- 보기: 1) 훌소리 /외/ -> 외상/외상/, 회계/회계/  
 2) 겹홀소리 /웨/ -> 외무/ '웨:무/, 되었다/웨얼따/

북한말에서는 표준말에서와 같이 이중모음 [we]로 나되 두번째 요소인 [e]가 약한 원순성을 띄고 있는 것이 다르다. 즉, 북한말의 /외/는 혀위치가 낮고 전진한 [w]에서 시작하여 제2차 기본모음 2번 [ø]와 3번 [æ]의 중간 소리로 미끄러져 가는 이중모음 [wø]로 난다.

#### 4.11 /위/의 소리값

표준말의 /위/는 대체로 겹홀소리로 난다. 즉 전설 원순 반모음에서 시작하여 /이/모음으로 미끄러져 가는 겹홀소리로서 프랑스말의 lui에서 나는 소리에 가깝다. 이에 비하여 북한말의 /위/는 단순모음으로 나되 혀위치가 낮고 약간 후퇴한 소리값으로 실현된다. 북한말의 “위험”, “귀순” 같은 낱말에서 나는 /위/의 소리값은 국제음성학회의 음성기호 [y]로 나타낼 수 있는 단순모음이므로 표준말의 이중모음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 4.12 겹홀소리 /의/

/의/ 겹홀소리는 훌소리 /으/에서 시작하여 /이/로 이동하는 특이한 겹홀소리이다. 그리고 표준말의 이중모음 /의/는 후설모음 /으/에서 시작하여 상당히 높은 혀위치의 /이/로 이동하는 겹홀소리이다. 겹홀소리 /의/는 “의사”, “의회”와 같이 주로 낱말의 첫자리에서 실현된다.

또한 현대 표준발음에서 /의/는 겹홀소리로 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홀홀소리로도 난다. 즉, /의/가 낱말의 첫자리 이외의 위치에서 나타날 때는 “주의”, “경의”, “민주주의”와 같이 단순모음 /이/로 나며, “사랑의 기쁨”, “고향의 봄”에서와 같이 토씨로 쓰이는 “의”는 단순모음 /에/로 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북한말에서는 /의/가 두 가지 음가를 지닌다. 하나는 표준말의 /의/보다 약간 앞쪽에서 시작하여 /이/로 향하여 짧게 이동하는 겹모음으로 나기도 하고, 때로는 중설 원순 폐모음으로 나기도 한다. 물론 이 때는 단순모음의 음가를 지닌다.

보기) “의사” -> /의사/[wisa]

“의무” -> /우무/[ɯmu]

#### 4.13 반모음 /j/의 삼입에 의한 겹홀소리 되기

표준말에서 홀소리로 나나 북한말에서는 겹홀소리로 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특히 반모음 /j/를 삼입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으로 북한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보기에서 표준말에서는 단순모음 /어/로 나는 경우, 북한말에서는 /j/가 삼입되어 /여/로 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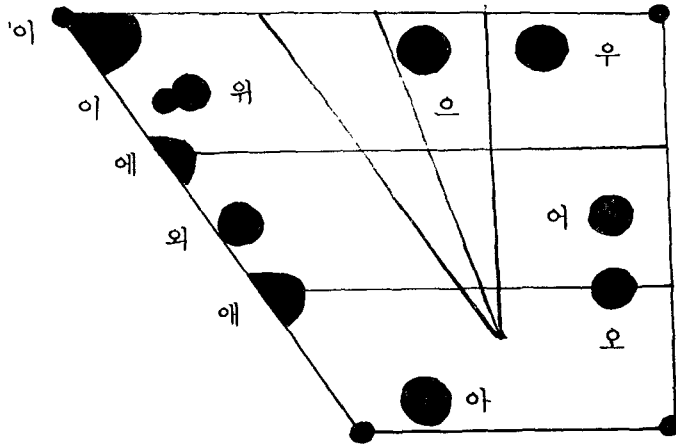
보기:	표준말	북한말
“되었다”	/되었다/	/되였다/
“하시였다”	/하시였다/	/하시였다/
“(심)지어”	/심지어/	/지여/

위에서 북한말의 “하시였다”는 맞춤법에서도 반모음 /j/가 반영되어 있음을 보이는 경우이고 “지어”는 맞춤법에는 반모음이 없으나 실제 발음에서 반모음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 준다.

#### 4.14 모음사각도상의 북한말 모음 음가

이상에서 기술한 북한의 모음 음가를 모음사각도상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 모음의 모음사각도상의 음가



5. 남북한의 자음 음가 비교

5.1 자음 기술 방법의 차이

북한말에서도 자음의 수를 19개로 잡고 있어서 자음의 수는 남북이 공통이다. 그런데 북한말의 자료에서는 자음을 발음할 때, 날숨은 장애를 한 곳에서 받을 수도 있고 두 곳에서 받을 수도 있는데, 날숨이 두 곳에서 장애를 받을 때는 어느 한 개의 장애가 기본장애이고 다른 장애는 덧붙는 장애라고 기술한다. 그리고 모든 자음은, 한 개의 장애를 받든 두 개의 장애를 받든, 입안에서는 반드시 장애, 즉 기본 장애를 받고 내는 소리라고 본다. 그리하여 자음은 기본장애와 덧붙는 장애의 결합관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뉜다고 본다:

- 1) 순한소리(기본장애만 있는 소리): <ㄱ, ㄷ, ㅂ, ㅅ, ㅈ, ㅊ, ㅎ >
- 2) 된소리(기본장애 + 목청에서의 덧붙는 장애): <ㄲ, ㄸ, ㅃ, ㅆ, ㅉ >
- 3) 거센소리(기본장애 + 목구멍에서의 덧붙는 장애): <ㅋ, ㆁ, ㆏, ㆑ >

자음을 순한소리(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세 가지로 나누는 방법은 한국에서도 익히 잘 알려진 일이나, “기본장애”와 “덧붙는 장애”라는 두 요소를 도입하고, 된소리와 거센소리를 <기본장애 + 덧붙는 장애>로 설명한 것이 이채롭다. 이것은 영국의 운율음운론(Prosodic Phonology)에서 기본적인 음운 단위를 설정한 다음에 여기에 다양한 운율자질(prosody)을 덧붙여서 여러 가지 음성 및 음운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을 연상시킨다. 가령 우리말의 <ㅃ, ㅆ, ㄲ, ㅉ>는 <ㅂ, ㄷ, ㄱ, ㅅ>에 <q>라는 된소

리 요소를 각각 더하여 얻은 소리이고, <ㅍ, ㅕ, ㅋ, ㆁ>는 거센소리 요소 <h>를 더하여 얻으며, <ㅁ, ㄴ, ㅇ>는 <ㅂ, ㄷ, ㄱ>에 콧소리 요소 <N>을 더하여 파생시킨 소리로 설명하는 따위이다(Lee, 1989, p.6).

그러나 “된소리를 낼 때에는 목청에서 날숨을 막았다가 터쳐서 내는 소리가 꺾따르므로 순한소리에 비하여 소리가 되다”(규범 23쪽)라는 설명은 지나친 속단이 아닌가 한다. 된소리가 반드시 목청(성대)에서의 터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센소리는 덧붙는 장애가 목구멍에서 이루어지는 자음이다. 거센소리를 낼 때에는 혀의 뒤부분을 목안벽 가까이 가져감으로써 날숨을 스치게 하는 소리가 꺾따르게 한다.”(규범 23쪽)라는 설명도 정확성이 없다. 거센소리의 원천은 혀뒤부분과 목안벽 사이가 아니라 성대이기 때문이다.

## 5.2. 남북한의 자음 분류법의 차이

북한의 자료에서는 자음을 조음위치에 따라 입술소리, 혀앞소리, 혀뒤소리의 세 가지로 대별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입술소리	혀 앞 소리	혀 뒤 소리
ㅂ, ㅃ, ㅍ ㅁ	ㄷ, ㄸ, ㅌ, ㄱ, ㅋ, ㄴ, ㄹ	ㄱ, ㅋ, ㆁ ㅇ, ㅎ

이것은 전통적인 음성학에서 자음을 조음위치에 따라 분류할 때의 기준과 상당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즉 혀앞소리는 적어도 잇몸소리(alveolar)와 입천장소리(palatal)로 구분해야 하나 북한에서는 이들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혀앞소리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혀가 참여하여 나는 소리를 혀앞과 혀뒤로 가르고 혀뒤소리가 아닌 것은 모두 혀앞소리로 묶은 결과이다. 그러므로 조음위치가 세분되지 못하는 결점이 생긴다. 가령 /ㄷ, ㄸ, ㅌ/는 치조음이고 /ㄱ, ㅋ, ㆁ/는 잇몸 뒤에서 나는 입천장소리이나, 북한은 이 두 가지 다른 조음위치를 하나로 묶어 나타내기 때문에 두 가지 소리의 구별이 없어진 셈이다. 이 역시 정확한 조음위치를 밝히려는 음성학적인 관점보다는 체계를 염두에 둔 음운론적인 관점에서 비롯되었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서 한국에서의 자음 분류는 일반음성학적인 체계에 따라서 세분하기 때문에 더욱 정밀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19개 자음의 조음위치

와 조음방법에 따른 분류 방법은 다음의 도표에 나타나 있다.

당 소 리 표

위 방 치 법	터짐소리 (파열음)	같이소리 (마찰음)	터같이소리 (파찰음)	흐름소리 (유음)	כות소리 (비음)
입술소리 (양순음)	/ㅍㅑㅑ/ /b p <sup>h</sup> p/				/ㅁ/ /m/
잇몸소리 (치조음)	/ㄷㅑㄷ/ /d t <sup>h</sup> t/	/ㅅ ㅅ/ /s <sup>h</sup> s/		/ㄹ/ /r l/	/ㄴ/ /n/
센입천장 (경구개음)			/ㅈㅊㅈ/ /j c <sup>h</sup> c/		
여린입천장 (연구개음)	/ㄱㅊㅊ/ /g k <sup>h</sup> k/				
목청소리 (성문음)		/ㅎ/ /h/			/ㅇ/ /ŋ/

5.3 파찰음 /ㅈ, ㅊ, ㅉ/의 소리값

남북한의 파찰음 /ㅈ, ㅊ, ㅉ/는 조음위치가 다르고 소리값도 다르다. /ㅈ, ㅊ, ㅉ/가 남한의 표준말에서는 후치조음으로 조음되는데 비해서 북한의 평양말에서는 조음점이 더 앞으로 진진하여 치조나 치조 가까이에서 조음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표준말에서는 앞혀의 앞부분이 후치조, 즉 치조 뒤의 경구개에 접촉하고 혀끝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비해서, 북한말에서는 혀끝과 혀날 부분이 치조에 접촉하여 조음된다. 결과적으로 표준말에 비해서 북한말의 /ㅈ, ㅊ, ㅉ/는 전진한 조음위치에서 발음되며 음가 역시 밝고 날카로운 인상을 준다.

5.4 파열음 /ㄷ, ㅌ, ㅍ/

표준말의 /ㄷ, ㅌ, ㅍ/는 “독재”, “당원”, “보통”, “따뜻한” 같은 낱말에서 치조음으로 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북한말에서는 /ㄷ, ㅌ, ㅍ/가 주로 치음으로 난다. 남한에서

도 젊은층이나 여성들이 처음으로 내는 일이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 치조음이 압도적이므로 북한말의 음가와는 차이를 보인다.

### 5.5 코소리 /ㄴ/

파열음 /ㄷ, ㅌ, ㅌ/와 마찬가지로 코소리 /ㄴ/도 남북간에 차이를 보인다. 표준말의 /ㄴ/이 치조음으로 나는데 비해 북한말의 /ㄴ/은 “노력”, “간염” 같은 낱말에서 처음으로 난다.

위의 보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말에서는 /간념/과 같이 /ㄴ/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북한말의 /ㄴ/은 표준말에 비해서 구개음화를 수반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 가령, “미녀”의 /ㄴ/이 표준말에서는 심하게 구개음화가 되나 북한말에서는 구개음화가 거의 수반되지 않거나 있어도 미약하다.

### 5.6 된소리 /ㅃ/의 예사소리 되기

북한말에서 된소리 마찰음 /ㅃ/가 때로는 예사소리 /ㅍ/로 실현되는 일이 있다.

보기)	남 한	북 한
“있어가지고” ->	/있어가지고/	/이서가지고/
“했어요” ->	/했어요/	/해시요/

### 5.7 연구개 비음의 중복

북한말에서 낱말안의 연구개비음은 중복되어 실현되는 일이 적지 않다. 따라서 중복 현상이 없는 표준말과는 차이를 보인다.

보기)	남 한	북 한
“병원”	/병원/	/병ㅇ원/
“영어”	/영어/	/영ㅇ어/

### 5.8 거센소리 기피 현상

예사소리가 뒤따르는 /ㅎ/과 결합하여 거센소리로 바뀌는 것이 표준말의 규칙적인 특징이나 북한말에서는 이런 경우 거센소리가 되지 않고 예사소리로 그대로 남는 현상이 있다. 이것은 남한의 호남지방 방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기)	남 한	북 한
“행복한”	/행복칸/	/행복한/
“못하는”	/모타는/	/못하는/
“인식하고”	/인식카고/	/인식하고/

### 5.9 /ㄹ/ 소리의 상이한 음성적 실현

남북한의 말은 /ㄹ/ 소리의 실현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표준말에서 튀김소리로 나는 /ㄹ/이 북한말에서는 설측음의 중복인 [ll]로 나고, 표준말에서 [l]로 나는 /ㄹ/이 북한말에서는 튀김소리로 나기도 하여 남북간에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보기)	남 한	북 한
일요일	이료일	일료일
일일이	일리리	이리리

### 5.10 전설 반모음 /j/의 탈락

남한의 표준말에서 쓰이는 반모음 /j/가 북한말에서는 흔히 탈락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와는 반대로 반모음 /j/가 삽입되어 이중모음을 이루는 경우도 있음을 모음의 기술에서 보인 바 있다(4.13 참조).

보기)	남 한	북 한
“노력”	/노력/	/노력/
“일년전”	/일련전/	/일련전/

### 5.11 두음 법칙의 파기

북한말의 음성 음운론적인 특성의 하나는, 어두의 자음이 제약을 받지 않고 분포된

다는 점이다. 표준말에서는 ‘ㄹ’과 ‘ㄴ’이 나타나는 자리에 제약을 주는 두음법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즉 ‘ㄹ’은 어두에 나타나지 않고 ‘ㄴ’은 ‘야, 여, 요, 유’ 등과 어두에서 결합할 때는 탈락한다.

그러나 북한말에서는 이 법칙이 무시되어 자유롭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문화어의 바탕이 되는 평양 방언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보기)	한 국	북 한
	노동신문	로동 신문
	이 선생	리 선생
	여자 동맹	녀자 동맹
	염원	념원

### 5.12 /ㅅ/의 된소리되기

북한말 발음의 특성의 하나로 예사소리 /ㅅ/의 된소리 /ㅆ/되기를 들 수 있다. 이는 특히 한자어에 붙은 “적”이라는 형태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준말에서 예사소리로 /ㅅ/으로 발음되는 “적”이 북한말에서는 규칙적으로 /ㅆ/으로 나서 두드러진 대조를 보인다.

보기)	한국	북 한
“전면적”	/전면적/	/전면ㅆ/
“실천적”	/실천적/	/실천ㅆ/
“기본적”	/기본적/	/기본ㅆ/
“긍정적”	/긍정적/	/긍정ㅆ/

표준말에서도 “지적/지ㅆ/”, “병적/병ㅆ/” 등에서 /ㅅ/의 된소리화가 일어나긴 하나 북한말에서는 더욱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6. 남북한 모음 길이의 차이

모음의 길이는 인간의 언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며 특히 낱말의 뜻을 분화하는



음운론적인 기능을 가진 언어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절대적이다. 우리말 역시 모음의 길이가 음운론적인 구실을 하는 언어이긴 하나, 오늘날 남북한의 언어에서는 모음의 장단이 그 실체와 기능에 있어서 상이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6.1 한국 표준말의 모음의 길이

한국의 표준말은 모음의 장단의 차이가 음운론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 가령, “사과”(하다)의 /사/는 길이가 길고 “사과”(과일)의 /사/는 길이가 짧아서 두 낱말의 뜻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인데, 여기서 긴 소리를 짧게 내면 두 낱말은 의미 구별이 상실된다. 그리고 /벌:/과 /별/, /전:기/와 /전기/ 등이 모두 홀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가 분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말에서 장단의 혼동은 곧 바로 의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의 말에서 장단의 구별이 다소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일반적으로는 장단의 구별이 잘 지켜지고 있다. 다음에 흔히 긴 소리를 짧게 발음하여 뜻의 혼동을 일으키는 낱말을 들어 보기로 한다.

긴 홀소리	짧은 홀소리
말:	말 (동물)
밭:(을 치다)	밭(바닥)
밤:(송이)	밤(낮)
눈:(사람)	눈(물)
벌:(집)	별(받다)
병:(원)	병(마개)
화:장(터)	화장(실)
기:생(집)	기생(충)
선:수(운동)	선수(치다)
과:장(하다)	과장(님)

### 6.2 북한말의 모음의 길이

그러나 북한말에서는 홀소리의 장단이 음운론적인 구실을 하지 않는 듯하다. 북한의 조선어 문법서나 규범집은 모음의 장단이 원칙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길이의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이는 결국 북한말에서 장단의 구별은 현실적으로 음운론적인 중요성이 대단히 약화되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 북한의 사전에는 홀소리의 길이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 같은 모음의 장단 현상은 남북의 언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말에서는 낱말의 첫음절 모음을 약간 길게 내는 특이한 현상이 있다. 가령, ‘청년’, ‘강산’, ‘영국’ 같은 낱말의 첫음절 모음은 표준말에서 모두 짧게 나타나 북한말에서는 약간 길게 나는 현상을 보인다. 그리고 모음의 실제 길이는 표준말의 짧은 모음보다는 길고 긴 모음보다는 짧게 난다. 따라서 표준말의 긴 모음의 길이를 수적으로 두 점을 찍어 나타내고(/:/), 짧은 모음을 길이 표시없이 모음만으로 나타낸다면, 북한말의 모음의 길이는 하나의 점을 덧붙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말의 긴 모음	“아” -> /아:/
표준말의 짧은 모음	“아” -> /아/
북한말의 단어 첫음절 모음	“아” -> /아:/
북한말의 그 밖의 모음	“아” -> /아/

그러므로 북한말의 모음은, 낱말의 첫음절에서 다소 길게 날 때에도, 표준말의 긴 모음보다는 짧게 발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말에서는 단어의 첫음절에 있는 모음이 다소 길게 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음운론적인 기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구태여 여기에 의미를 준다면, 단어의 첫음절이라는 사실을 나타낼 뿐이다. 다음에 표준말과 북한말의 모음의 장단을 비교하여 본다:

	표준말	북한말
가)	/바다/	/바.다/
	/영어/	/영.어/
	/조국/	/조.국/
	/따뜻한/	/따.뜻한/
	/당에서/	/당.에서/
	/한결같은/	/한.결같은/
나)	/사:과/	/사.과/
	/모:든/	/모.든/
	/자:랑/	/자.랑/
	/진:설/	/진.설/
	/못:하고/	/못.하고/
	/오:락실/	/오.락실/

위에서 가)에 속한 낱말들은 표준말에서 첫음절 모음이 모두 짧은 소리이나 북한말에서는 반장의 길이로 나며, 나)에 속한 낱말들은 표준말에서 첫음절 모음이 모두 긴 소리이나 북한말에서는 역시 반장의 길이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가)와 나)의 북한 발음은 표준말 사용자에게 주는 인상이 다르다. 즉, 나)의 북한 발음은 표준말 사용자에게 그리 이질감이 없다. 그 까닭은 북한말에서도 첫음절의 모음이 표준말 보다는 짧을지라도 약간의 길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의 북한 발음은 표준말 사용자에게 상당한 이질감을 준다. 그것은 표준말에서 짧게 나는 모음이 북한말에서는 다소 길게 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7. 남북한 언어의 리듬과 억양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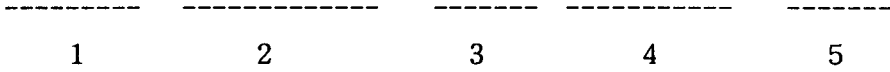
말의 리듬과 억양은 말씨나 말의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같은 언어를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리듬과 억양이 다르면 생소한 인상을 주게 된다. 표준말과 경상도 말을 쓰는 사람의 대화를 옆에서 들으면 리듬과 억양의 차이를 실감하게 된다. 같은 우리말이긴 하나 전달되는 인상이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런데 북한말 역시 리듬과 억양에서 남한의 표준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남북한의 말씨는 전혀 다른 인상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는 북한말의 리듬과 억양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기술하기로 한다.

### 7.1 남북한어의 리듬

북한말의 리듬의 특징은 리듬 단위의 길이가 짧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하나의 문장을 발음할 때에 이를 여러 개의 토막으로 나누어 발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가령, 표준말에서 두 개나 세 개로 나뉘는 글월이 북한말에서는 대여섯 개의 리듬 단위로 잘게 나뉘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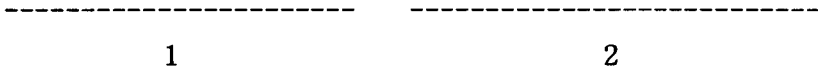
가령, “혁명적으로 세련되어 있으며, 씩씩하고 기백이 넘치는 발음이며”라는 말을 보기로 들어본다. 이 말은 북한말, 즉 문화어의 우월함을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말을 발음할 때에 북한인들은 대체로 다섯개 정도의 짧은 단위로 나누어 말한다. 즉, 다음과 같은 단락으로 나뉜다(여기서 /+ / 기호는 말토막의 경계, 즉 리듬의 단락을 나타낸다) :

“혁명적으로 + 세련되어 있으며, + 씩씩하고+ 기백이 넘치는 + 발음이며”



그러나 이 문장을 표준말 사용자에게 읽히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두 토막으로 나누어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혁명적으로 세련되어 있으며, + 씩씩하고 기백이 넘치는 발음이며”



위에서 북한말은 다섯 개의 토막으로 나뉘며 같은 문장이 표준말에서는 두 개의 단락으로 나뉘는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단락의 차이로 인하여 남북한의 말은 서로 다른 리듬 감을 전달한다. 즉 북한말씨는 표준말씨에 비해 명확하고 또박또박 발음한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남북의 차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즉 리듬 단락의 수에서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억양에서도 차이가 난다. 북한말에서는 각 단락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높내림조’의 억양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같은 반복적인 높내림조의 억양은 웅변조의 투쟁적, 선동적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이에 비해서 표준말에서는 북한말에 비해 목소리가 낮은 억양으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리듬과 억양으로 습관이 된 표준말 사용자들은 북한의 리듬과 억양이 전달하는 전투적이고 선동적인 말씨에 색다른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나 북한말씨가 전달하는 이러한 효과를 북한에서는 “씩씩하고 기백이 있다”고 표현한다.

이제 위의 문장을 억양을 더하여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는 높은 목소리에서 내려오는 높내림 억양을, ‘=’는 중간 높이의 목소리에서 내려오는 낮내림 억양을 나타낸다):

북한말: “혁명적으\`로 + 세련되어 있으\`며, + 씩씩하\`고+ 기백이 넘치\`는 + 발음이\`며”

표준말: “혁명적으로 = 세련되어 있으며, + 씩씩하고 기백이 넘치는 = 발음이며”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북한말에서는 한 단락의 끝 음절에 억양의 핵이 놓인다는 사실이다. 억양의 핵은 강세를 수반하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발음될 뿐 아니라 리듬적으로도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된다. 즉 단락의 끝음절을 강하게 발음하는 “약약강”의

리듬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표준말에서는 단락의 중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약강약”의 리듬을 나타낸다. 우리말에서 “약약강”의 리듬 유형은 “약강약”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강한 인상을 전달한다.

## 7.2 남북한 언어의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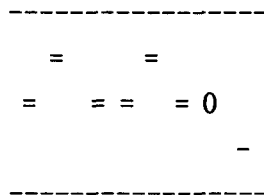
위에서 북한말 리듬의 특성을 기술하면서 이에 관련된 억양에 관한 설명을 부분적으로 한 바 있다. 여기서는 북한의 서술문에서 나타나는 억양의 대표적인 특성을 표준말 서술문의 억양과 대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억양은 말의 가락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가락은 바로 목소리의 높낮이, 즉 고저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서술문에 얹히는 억양은 남북한 말에서 모두 내림 억양으로 실현된다. 즉 목소리가 문장의 끝 부분에서 낮아지는 억양 곡선의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목소리가 낮아진다는 점은 똑 같지만 세부적으로 자세히 관찰하면 남북한의 억양 형태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들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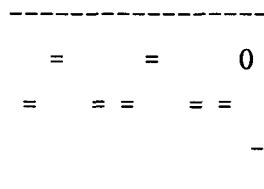
가령, 문장 1)을 서울 사람과 북한 사람에게 읽혀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억양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아래 선은 목소리의 하한선을 나타내고 윗선은 목소리의 상한선을 나타내며, /=는 해당 음절의 높낮이를 나타내고 /↓/는 목소리가 낮아지는 내림 억양을 나타낸다. 그리고 /0/는 강세음절을 표시한다.

### 1) “나는 영아를 미워해.”

표준말: “나는 영아를 미워 해.”



북한말: “나는 영아를 미워 해.”



위에서 표준말은 “미워해”를 발음할 때에 /미워/가 같은 중간 높이에 있고 /해/가 낮게 떨어지는 내림 억양을 보인다. 이에 비해 북한말에서 /미워/는 형태가 표준말과 같으나 /해/에서 높내림억양이 실현되며, 이때에 내림억양이 시작하는 목소리의 높이는 표준말의 경우보다 한 단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준말에서는 중간 정도의 높이에서 점차 낮아지는 억양 곡선을 보인다.

위의 자료를 실험음성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다음에 제시한다. 그림 9(북한말:NK)와 그림 10(표준말 : SK)은 “나는 영아를 미워 해.”라는 문장을 북한말(귀순자 K씨의 발음)과 표준말(필자의 발음)을 녹음하여 CSL 4300으로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 억양을 반영하는 C>Pitch 라고 표시된 분할 화면을 보면 사각형으로 표시된 문장의 끝부분 억양에서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NK는 문장 끝의 억양이 높은 데서 낮게 떨어지는 높내림 억양으로 실현되나, SK는 같은 부분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낮내림 억양으로 실현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차이는 앞에서 조음음성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영만이네는 영아를 미워한다”라는 문장의 남북한 발음을 음향분석한 결과를 그림 11과 그림 12로 제시한다. 여기서도 문장의 끝 부분인 /한다/가 NK(그림 11)에서는 높내림으로 나나 SK(그림 12)에서는 낮내림으로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한 음성언어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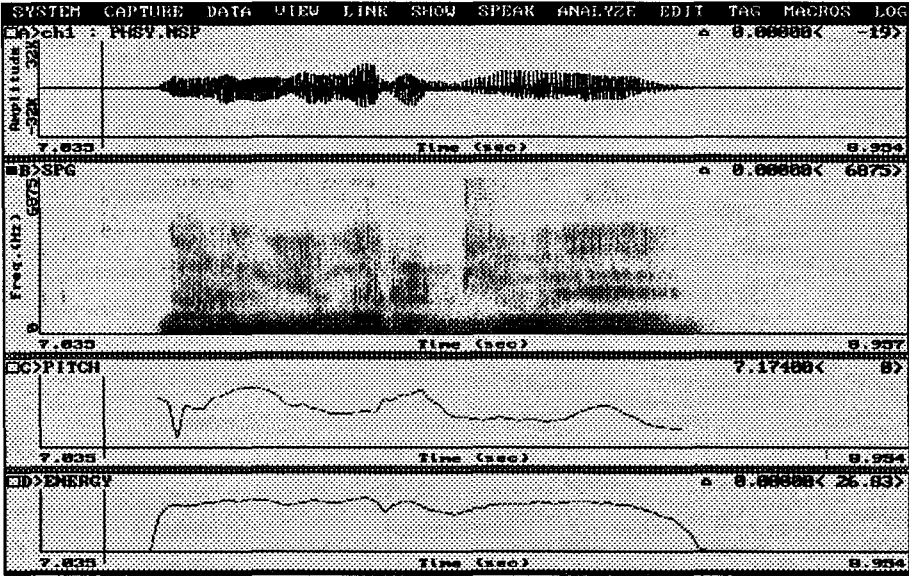


그림 9. NK. 나는 영아를 미워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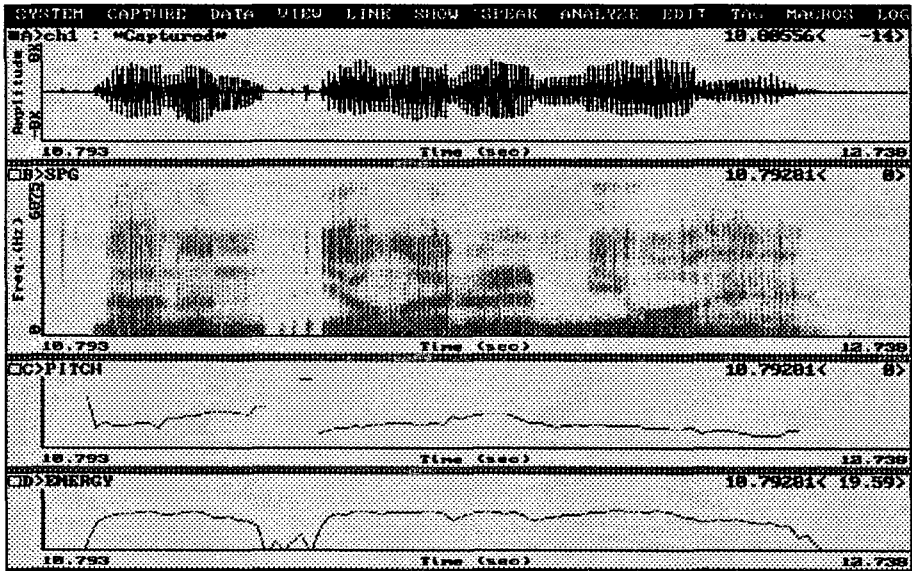


그림 10. SK. 나는 영아를 미워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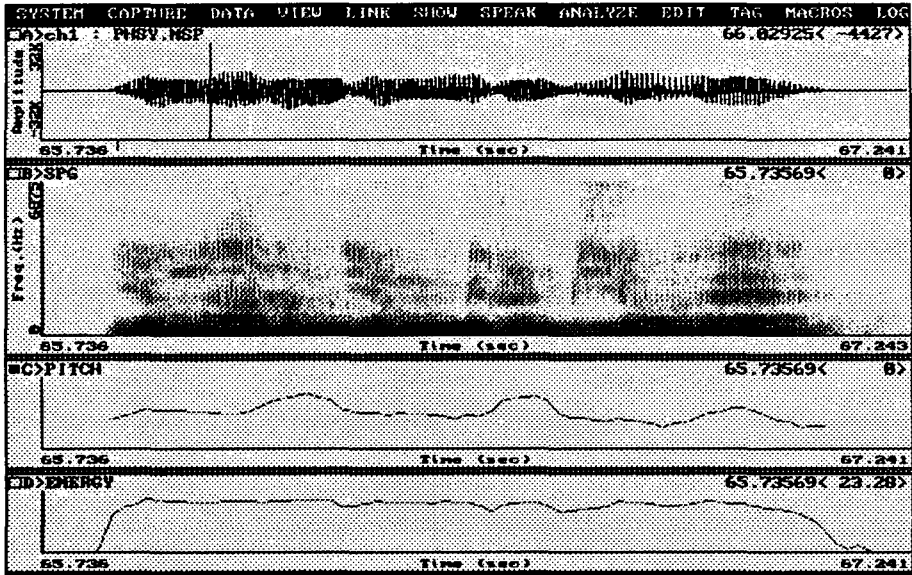


그림 11. NK. 영만이네는 영아를 미워한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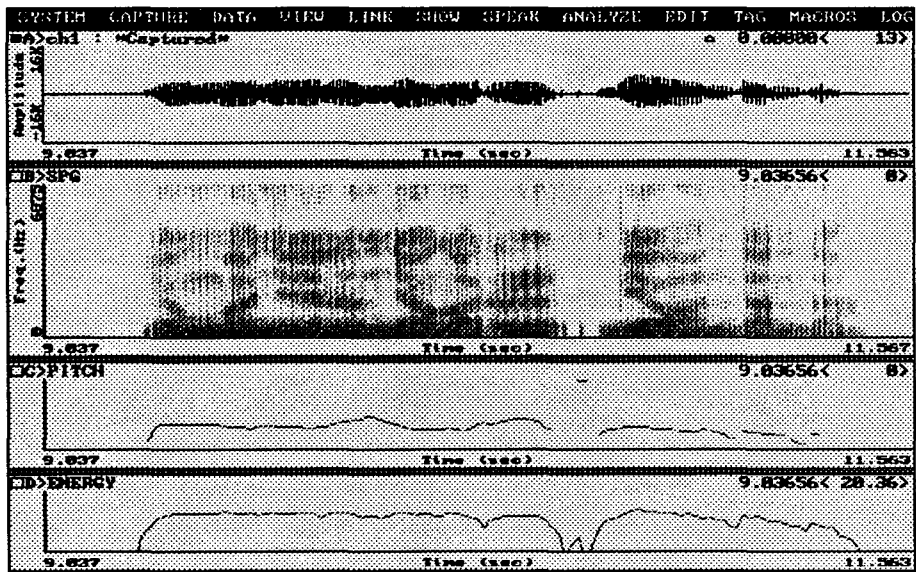


그림 12. SK. 영만이네는 영아를 미워한단다.



## 8. 맺음말

이 글에서는 남북한의 음성언어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동안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는 주로 어휘면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음성언어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에 관한 집중적인 고찰과 분석을 하였다. 북한말의 자료는 필자가 직접 접촉한 북한측 학자와 인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아울러 북한의 텔레비전과 방송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하였다.

연구 범위는 음성언어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1)모음의 음가, 2)자음의 음가, 3)모음의 길이, 4)말의 리듬, 그리고 5)억양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연구 방법은 주로 조음음성학적인 방법을 택하였다. 모음은 국제음성학협회의 기본모음 체계를 도입하여 가능한 한 정밀한 음가 기술을 시도하였으며, 자음 역시 조음음성학적 방법으로 남북한어의 음가 차이를 비교하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실험음성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남북한의 음성적 차이를 실증적으로 제시하려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 남북한의 음성언어에는 모음과 자음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드러났다. 그리고 모음의 장단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남북한간에는 말의 리듬과 억양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음성학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는 어휘 면에서 뿐만 아니라 음성언어에서도 존재하며 음성언어에서의 이질화는 그 유형과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남북한의 언어이질화 해소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될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 이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분야별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 남북한의 음성언어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밝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과학백과사전출판사(1979), 조선문화어문법,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1976), 조선문화어문법규범, 평양.  
 김방한·이현복 등(1982), 언어학 개설, 형설출판사.  
 박주현(1985), “영어의 리듬과 운율이론”, 서울대 언어학과 박사학위 논문.  
 윤일승(1992),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의 말토막 비교 연구.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근(1987), 한국어 억양의 형태와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이현복(1974), “국어의 말토막과 자음의 음가”. 한글 제 154호. 한글학회.
- 이현복(1974), “서울말의 리듬과 억양”, 어학연구 10-2, 서울대 어학연구소, 170호. 한글학회.
- 이현복(1982), 국제음성문자와 한글음성문자, 과학사.
- 이현복(1982a), “속도와 리듬에 따른 말소리의 변동”, 어학연구 18-1, 서울대
- 이현복(1982b), “한국어 리듬의 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4호, 대한음성학회,
- 이현복(1985), “Visi-Pitch에 의한 운율자질의 분석고찰--한국어, 영어, 프랑스어의 리듬을 중심으로--”, 말소리 9-10, 대한음성학회,
- 이현복(1987), “Korean Prosody: Speech Rhythm and Intonation”, *Korea Journal* 27-2,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이현복(1988), 우리말의 표준발음, 탐구당.
- 이현복(1989), 한국어의 표준발음, 과학교육사.
- 이현복(1989), Korean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 이현복·김선희(1991), 한국어 발음검사, 국제출판사.
- 이호영(1992), “한국어의 변이음 규칙과 변이음의 결정요인들”. 말소리 21-24호. 대한음성학회.
- 이호영(1993), “한국어 자음 변이음들의 조음적 특성”. 어문교육 제 2집. 부산수산대학교 어학연구소.
- 이호영, 지민제, 김영송(1993), “동시조음에 의한 변이음들의 음향적 특성”. 한글 220호. 한글학회.
- 허 응(1985),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 Dauer, R. M.(1983), “Stress-timing and Syllable-timing reanalyzed”, *Journal of Phonetics* v.11: pp. 51-62.
- Fry, D. B (1955b), “Duration and Intensity as physical correlates of linguistic stress”,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v.27: pp. 765-768.
- Hoequist, C. Jr.(1983b), “Syllable Duration in Stress, Syllable- and Mora-timed Language”, *Phonetica* 40, pp. 203-237.
- Klatt, D. H.(1973), “Interaction between two factors that influence vowel duration”,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vol.54-4, pp.1102-1104.
- Lee, H. Y.(1990) *The Structure of Korean Prosody*. Seoul: Hanshin Pub.
- Lehiste, I.(1970), *Suprasegmentals*,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and London.
- Strangert(1985), *Swedish Speech Rhythm in a Cross-Language Perspective*, Ph. D. Dissertation, Umeå University, Stockholm.